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так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유윤중*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 히브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어유희’(paronomasia)이다.¹⁾ 언어유희는 히브리 시의 중요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매우 자주 나온다.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언어유희(paronomasia)란 소리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들을 가리킨다.²⁾ 유사한 음을 가진 단어의 반복이나 기발한 방법을 통해 이미 때가 묻은 단어나 이미지를 변형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형태와 방법 및 전개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언어유희의 목적과 기능 또한 다양하다. 그린스타인(Greenstein)은 언어유희의 기

*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구약성서의 언어유희에 관한 소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J. M. Sasson, “Wordplay in the OT,” *IDBSup* (Nashville: Abingdon, 1976), 968-970; E. I. Greenstein, “Wordplay, Hebrew,” *ABD* 6 (1992), 968-971; Gary A. Rendsburg, “Word Play in Biblical Hebrew: An Eclectic Collection,” Scott B. Noegel, ed., *Puns and Pundits: Word Play in the Hebrew Bible and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Bethesda: CDL Press, 2000), 137-162; L. J. De Regt, “Wordplay in the OT,” *NIDB*, vol 5 (200), 898-900.
- 2) Greenstein, “Wordplay, Hebrew,” 968. 영어단어 paronomasia 혹은 pun은 wordplay의 한 형태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학에서 paronomasia는 wordplay로 인식된다.

능을 일반적 예와 고유한 이름에 관한 예로 구분한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1) 미적인 목적, 2) 생각이나 연상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 3) 중심적인 단어, 4) 암시, 5) 아이러니, 6) 풍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특정한 인명이나 지명과 관계된 언어유희의 경우, 특히 ‘이상’(vision)과 같은 시각적인 상징의 형태를 띠 때, 그것들이 미래에 일어날 운명이나 숙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11-12에 나타난 살구나무 이상의 경우 여호와께서는 ‘살구나무’(גִּזְעֵי)를 보여주면서, 그의 예언을 ‘지켜’(גִּזְעֵי)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이상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1:13-19).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계된 이상(렘 1:10-11)에서 이루어진 언어유희는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다.³⁾ 폰라드(von Rad)는 언어유희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유희 내의 단어는 일정한 정도의 의미를 상실한다.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일련의 소리들로 기능한다. 원래의 가치를 다소 줄이더라도 일련의 소리들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현재의 위치에서 새로운 연상과 새로운 의미로 둘러싸인다.⁴⁾

이 글에서는 위에서 그린스타인이 제시한 언어유희의 운명적, 심판에 대한 예시적 기능으로 사용된 예를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기능이 폰라드가 지적하듯이, 언어유희가 사용된 구절 내에서와 아모스서의 심판신탁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하며 어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세 언어유희 단락이 아모스서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2장). 이어서 언어유희가 일어나는 세 단락의 분석을 통해 언어유희가 심판신탁에서 미래에 일어날 씨앗으로

3) Greenstein, “Wordplay, Hebrew,” 970-971.

4)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2 (New York:Harper and Row, 1962-1965), 84. 폰라드는 이러한 종류의 언어유희의 예로 이사야 10:29-31; 예레미야 1:11-12; 미가 1:10-15를 든다.

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3장). 마지막으로 폰라드가 제시한 대로 세 언어유희 단락이 심판신탁으로 아모스서 내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하며 강화된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4장).

1. 아모스서의 구조와 세 언어유희

아모스서의 구조는 다른 예언서들과 유사하게 매우 어지럽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신탁들의 수집으로 되어 있어서 각 예언서 내에서 일관된 짜임새를 가진 구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질서한 구조로 된 것도 아니다. 대부분 느슨한 형태의 통일성을 지닌다. 아모스서 역시 명확하게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느슨한 형태의 통일성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큰 구도에서 서론(1:1-2)과 본론(1:3-9:10)과 결론(9:11-15)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경우 심판의 말씀(1:3-6:14)과 다섯 가지 이상(7:1-10)으로 되어 있다. 심판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말씀(1:3-2:16)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3:1-6:14)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다섯 가지 이상 가운데 메뚜기(7:1-3), 불(7:4-6), 다림줄(7:7-9) 이상과 세 번째 다림줄 이상(7:7-9)과 네 번째 여름과일 이상(8:1-3) 사이에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결을 벌이는 장면(7:10-17)이 나온다. 또한 네 번째 여름과일 이상(8:1-3)과 다섯 번째 성전 이상(9:1-10) 사이에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를 띤다. 위의 설명에 근거해 아모스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서론(1:1-2)

B. 본론(1:3-9:10)

a. 심판의 말씀들(1:3-6:14)

a) 열방에 대한 심판(1:3-2:16)

b)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3:1-6:14)

- b. 다섯 가지 이상(7:1-9:10)
 - a) 첫 번째 이상(7:1-3)
 - b) 두 번째 이상(7:4-6)
 - c) 세 번째 이상(7:7-9)
 - d) 아모스와 아마샤(7:10-17)
 - e) 네 번째 이상(8:1-3)
 - f) 심판의 이유와 불가피성(8:4-14)
 - g) 다섯 번째 이상(9:1-10)

C. 결론(9:11-15)⁵⁾

위의 구조에 근거해 볼 때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세 개의 언어유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6:13-14)과 세 번째 이상(7:7-9)과 네 번째 이상(8:1-3)에 나온다. 단순히 구조만 놓고 보면 세 개의 언어유희가 아모스 전체의 구성에서 보아 뚜렷한 구성적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세 언어 유희는 모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신탁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 아모스서의 심판신탁에 나타난 세 언어유희

2.1. 6장 13-14절

הַשְּׂמַחִים לֹא דָבַר הָאֲמָרִים הַלּוֹא בְּחֻזְקוֹנוּ לְקַחְנוּ לָנוּ קִרְיָנִים: ¹³
 כִּי הִנְנִי מְקִיִּם עֲלֵיכֶם בַּיִת יִשְׂרָאֵל נְאֻם־יְהוָה אֱלֹהֵי הַעֲבָאוֹת גּוֹי ¹⁴
 וְלִחְצוֹ אֶתְכֶם מִלְּבוֹאֵי חַמָּת עַד־נַחַל הָעַרְבָּה: ס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5) 유윤중,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 (서울: 킹덤북스, 2011), 94-95에서 요약한 것이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확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개역개정』

13 너희가 로드발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카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14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새번역』

6:13에 대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번역은 매우 다르다. 개역개정은 문자대로 히브리어 **רֹדֵף אֵלַי**을 “허무한 것”으로 **מִיָּדְיָם**을 “빨들”로 번역 했다. 반면 새번역은 “로드발”과 “카르나임”이라는 지명으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은 지명을 의미로 풀어 번역했으며, 새번역은 지명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은 번역의 각주에서 ‘로드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지닌 지명”으로 ‘카르나임’에 대해서는 “힘을 상징하는 ‘두 빨’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따른 경우와 지명을 따른 경우로 나뉜다. 영어 성경에서도 KJV과 ASV은 문자적 의미에 따라 번역했으며, RSV와 NIV는 지명으로 번역했다. 이 두 번역중 하나는 잘못된 번역일까? 어느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일까?

이 구절에 나오는 ‘로드발’과 ‘카르나임’은 지명이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이다. 예언자 아모스의 출신이 남 유대인가 북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⁶⁾ 아모스의 신탁 선언이 북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선포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해당한다. 여로보암 2세 시대

6) 로젠바움은 예언자 아모스가 남쪽 출신으로서 북쪽에 와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북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다음을 보라. Stanley N. Rosenbaum, *Amos of Israel: A New Interpretat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0).

(782-753)는 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 및 아합 시대의 제 1 부흥기 이후 약 100년 뒤에 찾아온 제 2의 부흥기였다. 국수주의자 요나가 선포한 열왕기하 14:25-27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 이르렀다. 6:13-14의 배경은 이러한 여로보암 2세의 군사적 업적과 관련되어 있다. 아모스 6:14의 말씀과 열왕기하 14:25의 말씀에 나오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6:14에서는 ‘아라바 시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⁷⁾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로드발’과 ‘카르나임’이라는 도시를 점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구약성서의 여러 곳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온다(수 13:26; 삼하 9:4,5; 17:27). 이 지명은 길르앗 북쪽 암몬 지역의 영토이며, 압복강 북쪽의 ‘텔 엘함메’(Tell 'el-Hammeh)로 알려져 있다.⁸⁾ 두 번째 지명인 ‘카르나임’은 아람의 영토로 중앙 바산 지역, 야르묵 강의 북쪽 지류인 ‘쉐이크 에스-사아드’(Sheikh es-Sa'ad)로 추측된다.⁹⁾

6:13-14은 예언자가 여로보암 2세 당시의 군사적 업적에 대해 기뻐하고 자신감을 보였던 북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조롱한다. 예언자가 ‘로드발’과 ‘카르나임’이라는 두 지명을 인용해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조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지명은 점령지역을 대표할만한 도시 아니었다. 대표적인 두 지명은 14절에 나오는 하맛과 아르바일 것이다. 아모스가 두 지명을 인용한 이유는 두 지명이 가진 히브리어에서의 의미 때문이다. ‘로드발’이라는 지명

7) 아모스와 열왕기하의 연결점에 대한 다수의 학자들은 ‘신명기 사가의 편집’으로 설명한다. 다음을 보라. W. H. Schmidt,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m Prophetenwort und seinem Sammler,” *ZAW* 77 (1965), 168-193; K. Möller, “Re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Amos’s Literary Prehistory: A Dialogue with Redaction Criticism,” C. Bartholomew et al. eds., “*Behind the Text: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SHS 4 (Carlisle: Paternoster; Grand Rapids: Zondervan, 2003), 402; Martha E. Campos, “Structure and Meaning in the Third Vision of Amos(7:7-17),”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1:3 (2011), 21.

8) Paul, *Amos*, 219.

9) Paul, *Amos*, 219.

의 히브리어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뜻한다. ‘카르나임’이라는 지명의 히브리어 의미는 ‘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렌’(קֶרֶן)의 쌍수형으로 ‘두 뿔’을 가리킨다. ‘두 뿔’은 힘을 상징한다.¹⁰⁾ 본문에서 예언자는 로드발을 점령한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령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그것을 차지한 후 기뻐하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다. 아울러 자신들만의 힘으로 힘센 ‘두 뿔’인 카르나임을 차지했다고 기뻐하는 교만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다. 또한 뿔은 성전제단과 관련되어 있다. 성전의 제단의 모습도 뿔 모양이다. 반 솔로몬 편에 섰던 요압이 패배한 후 여호와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잡은 것도 제단의 뿔이었다(왕상 2:28).¹¹⁾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살인죄의 경우 도피성 내의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두 뿔’(카르나임)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두 뿔을 잡고 안도의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조롱한다.

13절의 번역은 로드발과 카르나임을 지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히브리어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6:13은 로드발과 카르나임의 점령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 포함된 지명의 의미를 활용해 예언자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당시의 독자들은 예언자의 선포 내지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지명과 의미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명과 의미를 동시에 떠올리며 둘 사이의 언어유희에 집중하며 흥미롭게 느끼면서 잠시 생각했을 것이다. 언어유희의 기능은 기발한 착상이나 흥미를 일으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6:13은 로드발과 카르나임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지명과 의미를 동시에 활용한 언어유희로 해석해야 한다. 본문을 통해 전하려는 이 언어유희의 효과는 독자의 관심을

10) Billy's K. Smith, 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AC 19B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123.

11)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ume on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248.

집중시키는 데 있다.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6:14의 심판선언에 있다.

6:14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선언이다. 심판의 내용과 범위를 말해준다. 심판의 내용은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고 학대할 것’이다. 심판의 범위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이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앗시리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암 5:27; 6:7). 앗시리아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북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주전 722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심판의 범위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이다. 이 표현은 북 이스라엘의 북남 경계를 가리킨다. ‘하맛 어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나타낸다(민 13:21; 34:8; 수 13:5; 사 3:3; 왕상 8:65; 왕하 14:25; 대상 13:5). 오늘날의 레바논 북쪽 카데쉬 남쪽 지역이다.¹²⁾ ‘아라바 시내’라는 표현은 본문에서만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아라바 바다’로 나온다(신 3:17; 4:49; 수 3:16; 12:3; 왕하 14:25). 이 지명은 사해의 북쪽 끝에 위치한 와디 켈트나 와디 케프레인을 가리킨다.¹³⁾ 그러므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남북의 끝에 위치한 두 지역을 이용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의미하는 ‘대조 환유법’(merism)이다.

6:13-14에 나타난 언어유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13에서 지명과 히브리어 의미라는 두 개의 요소를 활용해 언어유희를 생성해 관심을 집중시킨 후 예언자는 6:14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선포한다. 이 단락에 사용된 언어유희 방법은 지명을 활용한 것이다. 지명과 지명 속에 담긴 의미를 끌고 와 두 의미를 동시에 연결시킨 방식이다.

12) Paul, *Amos*, 220.

13) Paul, *Amos*, 221.

2.2. 7장 7-9절

7 כֹּה הִרְאֵנִי וְהִנֵּה אֲדֹנָי נֹצֵב עַל־חֹמַת אֲנָךְ וּבִידוֹ אֲנָךְ:
 8 וַיֹּאמֶר יְהוָה אֵלַי מִהֲאֵתָה רָאָה עָמוֹס וַאֲמַר אֲנָךְ וַיֹּאמֶר אֲדֹנָי הֲנִי שָׁם
 אֲנָךְ בְּקֶרֶב עַמִּי יִשְׂרָאֵל לֹא־אֹסִיף עוֹד עֲבוֹר לוֹ:
 9 וְנִשְׁמָו בְּמוֹת יִשְׁחָק וּמִקְדָּשֵׁי יִשְׂרָאֵל יִחָרְבוּ וּקְמַתִּי עַל־בֵּית יְרֻבָּעַם בְּחָרְבֵּ: פ

⁷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⁹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이 단락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5개의 이상 가운데 세 번째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다림줄 이상’으로 불린다. 이 단락은 7-8절은 이상을 두고 여호와와 아모스 사이에 나누는 대화이며, 9절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선언이다. 이 단락의 7-8절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קָנָךְ**이다. 4회 반복되는 이 단어의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단어는 **קָנָךְ עַל־חֹמַת אֲנָךְ** 벽 옆에라는 표현에 나온다. 둘째, 이 단어는 **קָנָךְ יְדוֹ**로 ‘그의 손 안에 **קָנָךְ**’라는 표현에 나온다. 셋째, 이 단어는 ‘무엇을 보느냐’는 여호와와의 질문에 대한 아모스의 대답으로 **קָנָךְ** 입 니다라는 표현에 나온다. 넷째,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내가 **קָנָךְ**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 속에 나온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여기에서만 나와 비교할 다른 용례가 없다. 이 단어의 의미와 해석은 매우 난해하며,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이 단어는 주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림줄’로 이해되어 왔다(왕하 21:13; 사 28:17; 34:11; 애 2:8). 다림줄로 번역된

이유는 이 단어를 납으로 해석하고 아모스서에서의 **꺄꺄**를 ‘다림줄’로 해석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건축에서는 납으로 만든 다림줄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납’을 다림줄로 사용한 것은 훨씬 후인 중세기 때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⁴⁾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납’이 아니라 ‘주석’으로 밝혀졌다.¹⁵⁾ 히브리어로 ‘납’을 의미하는 단어는 **꺄꺄**이다(민 31:22). ‘다림 줄’로 해석했을 때 첫째 ‘다림줄 벽’이라는 의미가 불확실하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개역개정) 혹은 “다림줄을 드리우고 쌓은 성벽 곁에”(새번역)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의미 확대이다.¹⁶⁾ 넷째 표현의 경우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꺄꺄**가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로 해석되기에는 ‘다림줄’이라는 의미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해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둘째, 이 단어는 금속으로 만든 도끼와 같은 파괴적인 무기로 해석된다. 손에 **꺄꺄** 즉 ‘도끼’를 들고 계신 여호와께는 도끼를 위해 만든 벽 위에 서 계신다고 해석한다.¹⁷⁾ 그러나 **꺄꺄**를 ‘도끼’로 해석할 언어학적 근거가 매우 약하고 의미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셋째, 이 단어를 ‘회반죽’으로 보는 것이다.¹⁸⁾ 랍비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광을 내다, 마무리하다, 윤을 내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수리하기 위하여 **꺄꺄** 즉 ‘회반죽’을 들고 있다는 해석이 된다. 회반죽의 용도는 건물의 외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8절의 네 번째 표현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넷째, 이 단어를 아카드어 *annaku*에서 온 ‘주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⁹⁾

14) Paul, *Amos*, 234, n. 65. 하지만 윌리엄슨은 언어학적 증거에 의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지만, 문맥상 ‘다림줄’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라. H. G. M. Williamson, “The Prophet and the Plumb-line: A Redaction-Critical Study of Amos vii,” A. S. van der Woude ed., *In Quest for the Past: Studies on Israelite Religion, Literature and Prophecy*, OTS 26, (Leiden: E. J. Brill, 199), 121.

15) B. Landsberger, “Tin and Lead-The Adventures of Two Vocables,” *JNES* 24 (1965), 285-296.

16) 영어번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a wall built with a plumbline” (NRSV).

17) Paul, *Amos*, 234.

18) Andersen and Freedman, *Amos*, 756-9.

여호와는 손에 ‘주석’을 들고 ‘주석’벽 옆에 서 있다. 주석은 청동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금속이다. 주석은 무기를 만들 재료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엄청난 주석을 벽처럼 쌓아두고 손에 주석을 들고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게 닥칠 전쟁과 파괴의 위협을 설명한다는 해석이다.²⁰⁾ 그러나 ‘주석’을 백성에게 든다는 네 번째 표현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이 단어가 가진 확실한 의미는 ‘주석’뿐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주석’으로 놓고 해석해야 한다. **קִישָׁם**를 주석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⁷ 손에 **주석**을 들고 **주석** 담 옆에 서 계신 나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 여주었습니다.

⁸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주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주석**을 두고 있으며 다시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역)

‘주석 담’은 연약한 상태의 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합금 되지 않은 상태의 주석은 매우 연약하다. 이때 ‘주석 담’은 쉽게 무너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네 번째 표현에서 완전한 의미가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단어의 의미와 해석 사이에는 난해성과 모호함이 덧붙여져 독자는 이 대목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상을 언어유희와 관련시켜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런 해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²¹⁾ 이 단락에서 **קִישָׁם**를 히브리어 **קִישָׁם**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קִישָׁם**는 ‘탄식하다, 한숨짓다, 신음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것으로 ‘탄식 및 한숨’을 의미한다(욥 3:24; 23:2; 시 6:7; 31:11; 38:10; 102:6; 사 35:10; 51:11; 렬 45:3). 아울러 유사한 발음과

19) CAD, A, II. 127-130.

20) Paul, *Amos*, 234.

21) Stuart, *Hosea-Jonah*, WBC 31 (Waco: Word, 1987), 373.

의미를 지닌 **תְּנִינִים** ‘신음’(시 12:6; 79:11; 102:21; 말 2:13)와 언어유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해석은 7:9에서의 심판선언과 잘 어울린다.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지역에 일어날 파괴와 여로보암의 집에 내릴 칼의 심판으로 인하여 탄식과 신음이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תְּנִינִים**를 언어유희를 해석할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주식’을 가리키지만 ‘탄식, 신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본 것은 확실하게 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넷째의 경우 ‘탄식, 신음’이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7:7-8절에 나오는 언어유희는 유사한 발음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음이의어’(homonym)에 해당한다. 이 이상에서는 8b에서 약한 의미의 심판선언이 이루어진다.

7:7-8에 나타난 언어유희는 8b의 심판이 확대되어 9절에서 구체화되어 선포된다. 언어유희를 통해 관심을 집중시킨 후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삭의 신당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상’(vision)은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의 한 형태이다. 시각적인 것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의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각적인 것과 의미 사이에 해석이 확실한 경우 언어유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숨기고자 할 때는 모호한 형태나 신비스런 방식으로 나온다. 이 단락에서는 ‘주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동원되며, 궁극적으로 동음이의어라는 언어유희를 이용해 의미를 전한다.

2.3. 8장 1-3절

כַּה הָרְאֵנִי אֲדֹנָי יְהוִה וְהִנֵּה כָּלֹב קִיץ¹
וַיֹּאמֶר מְהֵרָאֲתָה רֹאֵה עָמוּס וְאָמַר כָּלֹב קִיץ וַיֹּאמֶר יְהוָה אֵלֵי בָּא הַקִּץ²
אֶל-עַמִּי יִשְׂרָאֵל לֹא-אֹסִיף עוֹד עֲבוֹר לוֹ:

וְהִלִּילוּ שִׁירוֹת הַיְכָל בַּיּוֹם הַהוּא נְאֻם אֲדֹנָי יְהוִה רַב הַפֶּגֶר בְּכָל־מִקְוֹם
הַשְּׁלִיף הַס': פ

¹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²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³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개역개정』

이 단락은 아모스서의 다섯 가지 이상 가운데 네 번째 이상으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7:10-17) 후에 나온다. 네 번째 이상은 1) 이상(1), 2) 여호와와의 질문(2a), 3) 아모스의 대답(2aβ), 4) 여호와와 심판선언(2b-3)으로 구성된다. 이 단락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1절과 2a절에 나오는 단어 קָיָה와 2b에 나오는 단어 קָיָה 사이의 관계이다.

네 번째 이상에서 아모스가 본 것은 1절의 קָיָה וְכָל־פֶּגֶר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질문했을 때 2a절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로였다. 1절과 2a에서의 단어 קָיָה는 ‘여름 혹은 여름과일’이라는 뜻이며, קָיָה וְכָל־פֶּגֶר는 ‘여름 과일 광주리’를 의미한다.²²⁾ 그러나 2b에서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일러준 심판선언에서 וְשָׂרְאֵל קָיָה אֶל־עַמִּי וְשָׂרְאֵל이라고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다’라는 의미이다. 2b에서의 קָיָה는 ‘끝’이라는 뜻이다. ‘여름과일’이란 여름에 수확되는 과일로 구약성서에 자주 언급되며(삼하 16:1,2; 사 16:9; 28:4; 렘 40:10, 12; 48:32; 미 7:1), 주로 무화과를 의미한다.²³⁾ ‘여름과일’와 ‘끝’이라는 단어 사이의 번역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인 NEB, NIV, JB 및 New Living Translation은 ‘여름 과일’이라는 번역 대신에 ‘무르익은

22) 예레미야 5:27에서 וְכָל־פֶּגֶר는 ‘새장’을 의미하지만, 아모스서에서는 가느다란 나무를 잘라 엮어 만든 ‘광주리’ 또는 ‘바구니’를 가리킨다.

23) Paul, *Amos*, 253.

과일(ripe fruit)로 번역한다. 또한 ‘끝이 이르렀다’는 번역 대신에 ‘때가 무르익었다(The Time is ripe)’로 번역하며 ripe라는 단어로 유사성을 연결시킨다. 독일어 번역의 경우도 Ernte(수확)과 Ende(끝)이라는 번역으로 소리의 유사성을 지켜 내려했다. 각 언어권에서 번역에서도 언어의 유사성을 살리려는 시도는 언어유희를 번역에서도 살리려는 의도로 매우 고무적이며 흥미롭다.

네 번째 이상을 언어유희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פִּיִּקָּא와 פִּקָּא 사이에는 언어유희가 존재하지만, 두 단어의 어근과 의미는 각각 qvʃ “뜨거운”과 qʃʃ “잘라내다”로 다르다. 다만 둘 사이에는 발음에 있어서 유희를 이룬다. 두 단어는 남 유다에서는 다르게 발음되었지만, 북 이스라엘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일하게 발음되었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²⁴⁾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이중모음 ay가 장모음 ē로 발음되었다는 증거는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표준 히브리어는 yayin이지만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에서는 yēn으로 나온다. 이 현상으로 인하여 남북 히브리어 사이에는 다양한 동음이의어 현상이 나온다.²⁵⁾ 그러므로 남유다 히브리어에서의 이중모음 ay는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장모음 ē로 전환되어 나온다.²⁶⁾ 여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qēʃ로 읽었다는 증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 아마르나어의 qēʃu, 우가리트어에서의 qʃ, 계젤 칼렌다에서의 qēʃ 등에서 찾을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8:1-2에서는

24) J. C. L. Gibson, *Textbook of Syrian Inscriptions. Volume 1: Hebrew and Moabite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1), 2, 4, 7-8; E. Y. Kutscher,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1982), 66, 70, 78; W. R. Garr, *Dialect Geography of Syria-Palestine: 1000-586 B. C. 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38.

25) ayil/ēl, ḥayil/hēl, ḥayis/hēʃ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26) 남유다 히브리어 및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2001), 71-91;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어형적 특징들,”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7 (2001), 24-40.

남유다 히브리어와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사이의 발음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 언어 유희’(bilingual wordplay)이다. 이 언어유희에서 여호와는 ‘끝’이라는 심판을 선포하며 세 번째 이상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언어유희 바로 뒤에는 끝이 이르렀을 때의 현상을 설명해준다. 심판이 왔을 때 일어날 결과들이다. 첫째 소리의 변화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둘째 애곡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시체들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을 정도로 시체가 널리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상에서의 언어유희는 앞의 두 단락에서 나타난 예와 달리 언어유희에 직접 심판선언이 나온다. 앞의 두 단락에서는 언어유희 후에 심판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 단락에서는 언어유희가 심판선언에 직접 나온다. 언어유희에 이어서 나오는 3절의 경우 심판선언의 내용이 아니라 심판선언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준다.

3. 세 신так에 나타난 언어유희의 기능과 의미

아모스서의 구조 내에서 언어유희가 일어나는 세 단락은 모두 심판 신так이다. 심판신так이란 것은 예언자가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가올 형벌을 알려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심판신так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신так선포를 하기 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주로 죄를 고발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이다. 둘째, 심판 신так의 내용이다. 아모스서는 대부분 심판신так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단락인 9:11-15을 제외한 모든 본문은 심판신так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아모

27) Al Wolters, “Wordplay and Dialect in Amos 8:1-2,” *JETS* 31:4 (1988), 409. 이중모음 ay가 장모음 ē로 변한 현상은 대표적인 가나안 어에 속하는 페니키아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의 ‘ayil은 l로, bayit는 bt로, layil은 ll로, ‘ayin은 n으로 나온다. R. S. Tomback, *A Comparative Semitic Lexicon of the Phoenician and Punic Languages*, SBLDS 32 (Missoula: Scholars Press, 1978).

스서의 심판신탁의 구성은 매우 어지럽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신탁은 말씀과 이상이라는 장르로 크게 3:1-6:14과 7:1-9:11로 나눌 수 있다.

6:13-14에서 언어유희가 발생하는 것은 13절이다. 13절은 14절의 심판선언에 대한 이유이다.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14절)이다. 14절에서의 심판의 내용은 한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일어난 언어유희는 말씀에서 이상으로 전환되기 전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나온다.

7:7-9에서 언어유희는 7-8절이며, 8b-9절은 심판선언이다. 네 개의 히브리어 קָטַף 가운데 마지막(8b)은 심판선언에 해당하다. 따라서 8b는 언어유희의 마지막이자 심판선언을 포함한다. 9절의 심판선언은 8b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7:7-9의 언어유희는 세 번째 이상에 나온다. 첫 번째 이상은 폐뚜기에 의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아모스의 요청에 의해, 여호와와는 뜻을 돌이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이상은 불에 의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아모스의 요청에 의해, 여호와와는 뜻을 돌이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상은 동일한 패턴을 띤다. 그러나 세 번째 이상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킬 뜻이 전혀 없다. 그리하여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상에 나타난 언어유희는 앞의 두 이상에서의 용서의 분위기를 심판선언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8:1-3에서 언어유희는 앞의 두 예와는 달리 언어유희에 곧바로 나온다.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이라는 심판선언(2절)의 핵심에 등장한다. 앞의 두 예와는 달리 심판선언에 대한 이유나 정황 가운데 나와 심판선언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심판선언 자체에 나온다. 오히려 3절이 심판선언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설명한다.

아모스서에서 언어유희가 나오는 세 심판신탁은 느슨한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유희가 나온다는 점 이외에도 ‘이스라엘 집(족속)’(6:14), ‘내 백성 이스라엘’(7:8), ‘내 백성 이스라엘’(8:2)이라는 단어

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어의 연결뿐만 아니라 심판신탁이라는 장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7:7-9과 8:1-3의 연결점은 훨씬 더 많다. 동일한 장르인 이상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나’라는 동일한 어구로 연결되어 있다.

언어유희가 나오는 세 심판선언의 내용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13-14의 경우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대’(14절)였다. 7:7-9에서의 심판의 내용은 ‘황폐, 파괴, 칼’(9절)이다. 8:1-3에서의 심판의 내용은 ‘끝’이다. 죽음, 즉 날린 시체들이다(3절). 언어유희가 나오는 세 심판선언은 점차 강화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언어유희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가장 명확한 언어유희는 8:1-3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만큼 더 강한 심판선언은 없다. 그러므로 이중언어를 이용한 8:1-3에서의 언어유희는 문학적으로 심판선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 언어유희가 심판선언을 설명한 앞의 예와는 달리 심판선언이 언어유희 자체에 나와 심판선언의 신학적 메시지를 강화시켜 준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심판선언 가운데 8:4-9:10에 이르는 내용은 8:1-3에서 선포한 심판신탁의 성취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맺는 말

구약성서의 예언서에서 많은 언어유희가 나온다. 그 이유는 예언이란 장르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원래 예언이란 장르는 순수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예언이 선포된 현장이 있었다.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가진 예언서로 성장했다. ‘언어유희’는 특히 현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문학의 발달과 언어유희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엄중한 심판 신탁에서 언어유희가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유희가 가진 참신성과 모호성과 재미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세 개의 언어유희 현상을 살펴본 결과, 언어유희가 심판선언과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해 북 이스라엘의 운명을 선포하는 심판선언을 효율적으로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언어유희 현상이 아모스서 전체의 구도에서 명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슨한 형태의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놓였을 경우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언어유희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서론에서 폰라드가 지적했던 언어유희의 기능이 증명되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유희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언어유희를 번역으로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언어유희가 가진 기발한 착상과 메시지와의 관계는 의미는 문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주제어>

언어유희, 아모스, 심판선언,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예언서

<Key Words>

wordplay, Amos, judgment oracles, northern Israel dialect, prophetic books

* 접수일 2016년 3월 28일, 수정일 2016년 4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18일

참고문헌

-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
- 유윤중,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 (2001), 71-91.
- 유윤중,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어형적 특징들,” 「헤르메네이아투데이」 17 (2001), 24-40.
- 유윤중, 『마음으로 읽는 소예언서』, 서울: 킹덤북스, 2011.
- Andersen, F. I. & D. N. Freedman, *Amos*, AB 24a, Garden City, N.Y.: Doubleday, 1990.
- Campos, Martha E., “Structure and Meaning in the Third Vision of Amos(7:7-17),”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1:3 (2011), 1-28.
- De Regt, L. J., “Wordplay in the OT,”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ume 5 (2009), 898-900.
- Garr, W. R., *Dialect Geography of Syria-Palestine: 1000-586 B. C. 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 Gibson, J. C. L., *Textbook of Syrian Inscriptions, Volume 1: Hebrew and Moabite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1.
- Greenstein, E. I., “Wordplay, Hebrew,” *ABD* 6 (1992), 968-971.
- Kutscher, E. Y.,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1982.
- Landsberger, B., “Tin and Lead-The Adventures of Two Vocables,” *JNES* 24 (1965), 285-296.
- Mays, James L., *Amo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1978.
- Möller, K., “Re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Amos’s Literary Prehistory: A Dialogue with Redaction Criticism,” C. Bartholomew et al. eds., “Behind” *the Text: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SHS 4, Carlisle: Paternoster;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Paul, Shalom M., *Amo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Rendsburg, Gary A., “Bilingual Wordplay in the Bible,” *V&T* 38 (1988),

354-357.

- Rendsburg, Gary A., "Word Play in Biblical Hebrew: An Eclectic Collection,"
Scott B. Noegel, ed., *Puns and Pundits: Word Play in the Hebrew Bible and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 Bethesda: CDL Press, 2000, 137-162.
- Rosenbaum, Stanley N., *Amos of Israel: A New Interpretat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0.
- Sasson, J. M., "Wordplay in the OT," *IDBSup*, Nashville: Abingdon, 1976,
968-970.
- Schmidt, W. H.,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des Amosbuches: Zu
den theologis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m Prophetenwort
und seinem Sammler," *ZAW* 77 (1965), 168-193.
- Smith, Billy's K., 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 Stuart, D.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31, Waco, TX: Word, 1987.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ume on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Tomback, R. S. A., *Comparative Semitic Lexicon of the Phoenician and Punic
Languages*, SBLDS 32, Missoula: Scholars Press, 1978.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vol 2, New York: Harper & Row, 1962-65.
- Williamson, H. G. M., "The Prophet and the Plumb-line: A Redaction-Critical
Study of Amos vii," A. S. van der Woude, ed., *In Quest for the Past:
Studies on Israelite Religion, Literature and Prophetism*, OTS 26, Leiden: E.
J. Brill, 1991, 101-121.
- Wolters, Al, "Wordplay and Dialect in Amos 8:1-2," *JETS* 31:4 (1988), 407-410.

<초록>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유윤종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이 글은 아모스서의 심판신탁에서 언어유희가 발생하는 세 단락(6:13-14; 7:7-9; 8:1-3)을 분석해 그 언어유희가 어떻게 심판신탁에 나타나며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언어유희가 고유명사나 시각적인 형태를 취할 때 미래에 대한 예시적 기능을 담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 세 언어유희가 북이스라엘 대한 심판선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아모스서 내에서 언어유희와 심판선언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Wordplay and Amos's Judgment Oracles:

Focusing on Amos 6:13-14; 7:7-9; 8:1-3

Prof. Yoon Jong Yoo

(Pierson School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function of wordplays attested in three judgment oracles (6:13-14; 7:7-9; 8:1-3) in the book of Amos.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Amos lacks clear dividing marks unlike other prophetic writings and has a loose unity. Drawing upon G. von Rad's initial observation on wordplay, I will analyze wordplays in three judgment oracles and seek to find their literary function and theological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book of Amos.

First, in Amos 6:13-14 a wordplay appears in the words *Lo-debar* (לֹא דְבָר) and *Karnaim* (קַרְנַיִם). Two words can be interpreted literally as proper names. *Lo-debar* and *Karnaim* in verse 13 mean 'not a thing' and 'two horns,' respectively. Amos scorns the Israelites' rejoicing over the conquest of *Lo-debar* and *Karnaim* by reducing its significance to nothing and vain strength. In this judgment oracle, the occurrence of *Lo-debar* and *Karnaim* functions as a wordplay and provide the reason for judgment in verse 14.

Second, Amos 7:7-9 is the third vision among five visions appeared in the book of Amos. In this vision, a wordplay occurs in a Hebrew word אֲנָהּ. It is attested four times only in these verses. Its exact meaning is difficult to identify. Many scholar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but it is still under much debate. One clear meaning of this word is 'a tin' derived from Akkadian

annaku. If we apply the meaning of ‘tin’ to in Amos 7:7-9, it implies its double meaning by a wordplay. If a reader pronounces the word תִּנָּה, one would associate its meaning of ‘tin’ with a word הַתִּנָּה referring to ‘lament, groaning’ with a similar sound. In this vision, judgment occurs in Amos 7:8b-9. The last תִּנָּה appears in judgment oracle. In this vision, a wordplay is associated with judgment.

Third, Amos 8:1-3 is the fourth vision in the book of Amos. In this vision, the identification of two Hebrew words תִּנָּה and תִּנָּה is crucial. Although two words have different roots and meaning, but their sound is closely connected. It is remarkable to note that two words have same pronunciation in the northern Israel. The diphthong ay was changed to ē in northern Israel, whereas ay was kept in the southern Judah. Accordingly it is concluded that northern Israel people perceived תִּנָּה as תִּנָּה. It is considered as a bilingual wordplay.

Three judgment oracles in the book of Amos are connected with various wordplays. The forms of wordplay are different, but its literary function is closely connected. The severity of judgment in three judgment oracles escalates step by step. The climax is in Amos 8:1-3 where the word ‘end’ occurs in the form of wordplay. In the three judgment oracles found in the book of Amos, wordplay occurs with a variety of forms and conveys distinct theological message effectively.